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中 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熊 熠

2014年 2月

韓 · 中 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永春

熊 熠

이 논문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熊 熠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①

委 員\_\_\_\_\_①

委 員\_\_\_\_\_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II.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4

    1. 한·중 무역 현황 ..... 4

    2. 한·중 FTA의 추진 배경 ..... 14

        1)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동기 ..... 15

        2)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 동기 ..... 16

    3. 한·중 FTA 추진 현황 ..... 18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18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20

        3) 한·중 FTA 협상 과정 ..... 21

    4. 한·중 FTA의 필요성 ..... 24

III.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 29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	29
2.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 .....	30
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
IV.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쟁점 및 추진 과제 .....	40
1. 한·중 FTA의 주요 쟁점 .....	40
1) 한국의 주요 쟁점 .....	40
2) 중국의 주요 쟁점 .....	42
2. 한·중 FTA를 위한 추진 과제 .....	44
1) 한국의 과제 .....	44
2) 중국의 과제 .....	47
V. 한·중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51
1.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51
1) 한국에 대한 영향 .....	51
2) 중국에 대한 영향 .....	53
2.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	55
1) 한국의 대응 방안 .....	55
2) 중국의 대응 방안 .....	57

VI. 결론 .....	59
참고문헌 .....	61
Abstract .....	64

## <표 목차>

<표 2-1> 최근 한국의 무역 증가 추이 .....	4
<표 2-2>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 .....	6
<표 2-3> 한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	6
<표 2-4> 2006년-2013년(1-9월) 한국의 대 중국 무역 동향 .....	7
<표 2-5> 1992년과 2011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 .....	8
<표 2-6>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품목 및 금액 추이 .....	9
<표 2-7>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입품목 및 금액 추이 .....	10
<표 2-8> 중국의 무역 증가 추이 .....	11
<표 2-9> 중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 .....	12
<표 2-10> 중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	13
<표 2-11> 주요 국가별 대 한국 투자 현황 .....	14
<표 2-1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19
<표 2-13>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21
<표 2-14> 한·중 FTA 협상 과정 .....	23
<표 3-1>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	32
<표 3-2>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33
<표 3-3>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34
<표 3-4> 한국의 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	35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의 부상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1962년 461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GDP는 지난 40여 년간 연평균 10.6%씩 증가해 2012년에는 8조 3,786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인구, 자원, 면적 등에서 거대한 대륙과 같아서 그 자체가 거대한 시장이며, 풍부한 노동력과 외환 보유국, 개방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갖춘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2% 미만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은 8% 이상의 꾸준한 고도성장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 이르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단언컨대, 20세기 미국이 유럽연합의 전통적 서구 열강을 대체했듯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거나 최소 현재처럼 G2로써 미국과 쌍두마차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겐 기회이자 위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통해 잃은 것보다 누린 것이 더 많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09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를 앞지르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적으로 대중교역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앞 선 기술력으로 중국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거대 중국경제에 종속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교역

강화는 경계하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중국이 G2로까지 부상한 배경에는 등소평 이후 지속된 개방경제 체제에 기여한 바가 크며, 앞으로도 중국은 이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많은 수혜를 누렸으며, WTO 체제 아래서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주목할 것은 회원국 급증으로 WTO 체제의 다국 간 협정이 지지부진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경제의 자유무역 흐름을 이끈 것은 지역 내 자유무역 협정인 FTA이었다. 이에 한·중 양국은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그 효과와 역기능을 실험해 왔으며, 보다 파급력이 큰 한·중 FTA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공동연구와 협상을 지속해 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무역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 된 한·중 FTA 체결의 추진 배경, 한·중 FTA 체결의 추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쟁점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한·중 FTA 체결이 앞으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에서 주로 자유무역협정 관련 문헌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랐으며 양국의 수출입자료와 각종 무역관련 지표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자료는 한·중 FTA에 관한 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논문과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등 자료를 활용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 서론에

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한·중 무역 현황을 분석하였고, 한·중 FTA의 추진 배경, 추진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실증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양국 간 FTA를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 II.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1. 한·중 무역 현황

2013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1년이 되는 해다. 1992년 8월 수교 이후 21년간 양국 관계를 돌아켜보면,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지속 격상돼 왔다. 또한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에서도 수교 당시 양국 간 교역액 64억 달러, 상호방문자 수 13만 명에서 2013년에는 교역액 2,206억 달러, 상호방문자 수 641만 명으로 세계 외사에 유례없는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뤄왔다.<sup>1)</sup> 양국 간 교역량이 급증하고 또한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구조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계속 “수출주도형” 경제를 실시하여 수출입 무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액은 계속 증가한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2-1> 최근 한국의 무역 증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9	363,534	-13.9	323,085	-25.8
2010	466,384	28.3	425,212	31.6
2011	555,213	19.0	524,413	23.3
2012	547,869	-1.3	519,584	-0.9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1) 倪莹莹(2013),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

<표 2-2>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순이다.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고 2011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금액은 1342억 달러로 미국의 562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대 중국 수출금액은 총 수출금액의 23% 이상 차지하여 10%의 미국보다 2배 이상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3>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순이다.

2011년 중국의 대 한국 수입금액은 864억 달러로 작년 대비보다 20.8%로 증가했고 일본의 대 한국 수입금액은 683억 달러로 작년 대비보다 6.3%로 증가했다. 2011년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증가율은 일본보다 3배 이상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한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 수입에서 작년보다 7.2% 떨어졌지만 536억 달러를 기록하여 2위의 일본을 앞서 1위로 차지하였다.

한국의 실물경제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한국과 중국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처가 될 전망이다.

<표 2-2>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55,214	19	362,872	-1.5
1	중국	134,185	14.8	85,628	-2.4
2	미국	56,208	12.8	39,628	7.7
3	일본	39,680	40.8	25,890	0.5
4	홍콩	30,968	22.4	21,260	4.1
5	싱가포르	20,839	36.7	15,105	7.5
6	베트남	13,465	39.5	10,200	22.2
7	대만	18,206	22.8	9,958	-22.3
8	인도네시아	13,564	52.5	9,118	4.9
9	인도	12,654	10.7	8,037	-6.1
10	러시아	10,305	32.8	7,527	7.5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표 2-3> 한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24,413	23.3	347,085	-0.2
1	중국	86,432	20.8	53,655	-7.2
2	일본	68,320	6.3	43,088	-6.7
3	미국	44,569	10.3	30,202	0.0
4	사우디아라비아	36,973	37.9	26,544	10.5
5	카타르	20,749	74.1	16,902	33.1
6	호주	26,316	28.6	15,150	-10.2
7	쿠웨이트	16,960	56.3	12,061	10.8
8	독일	16,963	18.6	11,492	2.3
9	인도네시아	17,216	23.1	11,038	2.0
10	아랍에미리트 연합	14,759	21.3	9,957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경제 환경 악화에서 한국과 중국경제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양국 간 환율의 큰 변동 때문에 양국 무역교역액은 2008년 보다 284억 달러나 줄었고 그 후 지속적인 증가로 2012년의 2,15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표 2-4>참조).

<표 2-4> 2006년-2013년(1-9월) 한국의 대 중국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총 무역액
2006	69,459	12.2	48,55	25.6	20,903	118,015
2007	81,985	18	63,028	15.3	18,957	145,013
2008	91,389	11.5	76,930	22.1	14,469	169,319
2009	86,703	-5.1	54,246	-29.5	32,457	140,949
2010	116,838	34.8	71,574	31.9	45,264	188,412
2011	134,185	14.8	86,432	20.8	47,753	220,617
2012	134,323	0.1	80,785	-6.5	53,538	215,108
2013 (1-9월)	106,816	9.6	61,260	1.5	45,556	168,07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표 2-5>에 의하면 1992년과 2011년의 대중 교역을 살펴보면, 1992년 중국은 한국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위로 성장하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약 27억 달러에서 1,341억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대 중국 수입은 37억에서 865억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이미 한국무역의 주도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5> 1992년과 2011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2년	2011년	증대현황
교역액(순위)	6,378 (5위)	220,617 (1위)	35배
수출(순위)	2,653 (4위)	134,185 (1위)	51배
수입(순위)	3,724 (4위)	86,462 (1위)	23배

자료: 蘭云飛((2012), "한국과 중국의 FTA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

<표 2-6>에 의하면 2000년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1위로 차지하는 품목은 석유제품이다. 2012년에는 2000년보다 수출금액이 대폭 증가했지만 수출품목 순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철강관 품목은 2000년에 4위로 높은 순위에 차지했지만 2012년에 9위로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수출금액 증가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8위를 차지하던 반도체품목은 2012년에 수출금액이 급증하여 1위의 LCD 품목 아래 2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하위권을 차지하던 합성원료는 2012년에 수출금액이 40억 달러 증가하면서 5위로 성장했다.

<표 2-6>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품목 및 금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순위	2000년	2012년
1	석유제품(16.8)	LCD(202.9)
2	합성수지(15.8)	반도체(157.8)
3	전자관(12.3)	석유제품(110.0)
4	철강판(11.0)	합성수지(73.8)
5	가죽(7.6)	합섬원료(45.4)
6	컴퓨터(7.4)	자동차부품(44.0)
7	기타직물(6.0)	무선통신기기(42.8)
8	반도체(5.8)	중간원료(38.1)
9	합성원료(5.7)	철강판(36.7)
10	중간원료(5.1)	기초유분(32.4)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표 2-7>를 이용해서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입품목 및 금액 추이를 보면 2000년 대 중국 수입품목 중 의류품목이 8.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의류품목 수입금액은 증가했지만 순위는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컴퓨터품목은 2000년에 2위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여전히 2위에 머물지만 수입금액의 큰 폭 성장을 보였다. 반도체품목은 2000년 수입금액 6.3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6.4억 달러로 무려 10배나 성장하면서 1위에 올랐다.

<표 2-7>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입품목 및 금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순위	2000년	2012년
1	의류(8.7)	반도체(66.4)
2	컴퓨터(8.2)	컴퓨터(59.4)
3	석탄(7.2)	철강(55.4)
4	식물성물질(6.9)	무선통신기기(46.5)
5	반도체(6.3)	LCD(42.2)
6	화학원료(3.9)	의류(34.5)
7	선철 및 고철(3.8)	정밀화학원료(30.8)
8	음향기기(3.5)	정전기(27.7)
9	석유제품(3.2)	전선(19.3)
10	어류(3.1)	기구부품(17.7)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후, 외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수출입 무역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표 2-8>에 의하면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 대비보다 각 16.0%, 11.6%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바탕으로 중국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2010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31.4%, 37.5%로 작년 대비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다.

<표 2-8> 중국의 무역 증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7	1,218,155	25.7	956,261	20.8
2008	1,428,869	17.3	1,131,469	18.3
2009	1,200,362	-16.0	1,000,578	-11.6
2010	1,576,817	31.4	1,375,451	37.5
2011	1,896,570	20.3	1,691,889	23.0
2012	2,050,109	7.9	1,817,344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의 값싼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0년 동안 수출 1위, 수입 2위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및 브랜드 확보,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 중국 무역적자 확대에 의해 위안화 절상 압력이 확대되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 대 중국 수요가 급감할 경우 수출중심 성장정책에 의존하던 중국 경제에 외부충격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경제는 산업구조 개혁과 국내 수요 시장 개선을 통해 경제 안정성이 요구된다.<sup>2)</sup>

2011년 중국의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순서대로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이다. <표 2-9>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수출금액이 829억 달러, 2012년에는 5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의 국가별 수출 실적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 송원근·최남석(2012),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p.10.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순서대로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독일, 호주이다. <표 2-10>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수입금액 162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약 60억 달러가 감소되면서 중국 국가별 수입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중국의 제 4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2-9> 중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896,570	20.3	1,308,40	7.1
1	미국	324,300	14.5	226,491	10.2
2	홍콩	267,516	22.6	194,643	13.0
3	일본	147,290	22.5	98,541	5.3
4	한국	82,925	20.5	58,32	7.2
5	독일	76,433	12.3	46,500	-7.9
6	네덜란드	59,482	19.7	38,453	0.9
7	인도네시아	50,489	23.5	31,011	-4.5
8	영국	44,113	13.8	29,747	7.5
9	러시아	38,886	31.4	28,261	13.5
10	싱가포르	35,297	9.2	24,396	4.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표 2-10> 중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691,889	23.0	1,143,773	4.2
1	일본	194,410	10.3	120,017	-6.0
2	한국	161,673	17.1	104,464	0.1
3	미국	118,121	16.6	83,291	6.6
4	대만	124,895	8.0	82,237	-1.0
5	독일	92,759	24.7	61,700	0.8
6	호주	80,930	35.6	53,006	4.2
7	말레이시아	62,017	23.1	37,602	-7.7
8	사우디아라비아	49,545	50.8	36,433	15.7
9	브라질	52,649	38.4	35,760	8.8
10	러시아	39,043	51.3	30,080	22.2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13)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 투자건수는 7,527건으로 투자금액은 373억 달러이다. 여기에 투자 항목은 주로 무역, 항공, 금융, 관광 등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대 한국 투자의 전반적인 면에서 중국의 대 한국 투자건수나 투자금액 규모는 모두 작은 편이다. <표 2-11>에서 본바와 같이 2011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의 투자건수는 일본, 미국 다음 7,527건으로 3위에 있지만 투자금액은 373억 달러로 7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3)</sup>

<표 2-11> 주요 국가별 대 한국 투자 현황

(단위: 건, 억 달러)

년도	2010년		2011년		1992년-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382	197.4	305	237.2	8,184	4361.4
일본	422	208.3	500	228.9	8,211	2423.9
중국	616	41.4	405	65.1	7,527	373.3
홍콩	77	9.3	112	57.2	1,203	446.5
호주	24	0.7	25	9.1	405	199.5
독일	66	26.8	98	147.1	1,430	1034.9
영국	94	64.9	80	92.0	1,153	1137.4
프랑스	37	16.0	32	23.6	775	600.6
스웨덴	16	30.1	14	10.7	196	145.1
스위스	28	85.0	39	18.8	471	164.2

자료: 지식경제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작성(2012)<sup>4)</sup>

## 2. 한·중 FTA 추진 배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통상 질서의 중심축은 WTO(세계무역기구)이었다. WTO안에서 무역자유화 등 세계 통상 규율을 정하고 각 국은 그 규정을 이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중심축이 FTA로 옮겨왔다. 이제는

3) 倪莹莹(2013), 전제서, p.28.

4) <http://www.mofe.go.kr> 한국지식경제부 국가별 대 한국 투자 통계자료(2012).

마음에 맞는 몇 국가들끼리 FTA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정도와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런 지역주의가 유럽연합이나 남미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북미나 아시아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같은 대륙 내에 있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 간에도 FTA가 많이 체결되었다.

각 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시장을 확대하고자하는 것이다. FTA체결로 국가간 무역장벽을 없애서 수출을 늘리고 필요한 물자를 좀 더 저렴하게 수입하자는 목적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 1)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동기

한국은 현재 칠레, 아세안, EFTA, 미국 등 거점 국가들과의 FTA 타결 후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타결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가 해결되지 않은 장벽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중국시장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

##### (1) 경제협력에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더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ASEAN과 상품, 서비스, EFTA 등과 FTA가 발효되었고, 인도, 미국, 유럽연합, ASEAN(투자) 등과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다. 만약에 한국과 중국, 일본간의 FTA가 체결 되면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목표는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 (2)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세계 인구의 2%와 세계 GDP의 5.4%(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속발전에 세계 경

제 2위권이 되었다. 이러한 고속성장에 따라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수입시장은 2015년 실질 구매력 기준 GDP는 94,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대등할 것을 전망된다.<sup>5)</sup>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통상 접근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성장의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3) 지속적인 경제성장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로 국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FTA 등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산업 분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정치 목표의 달성과 지역주의 영향력 확대

각 나라와의 FTA 체결은 정치목표의 달성과 지역주의 영향력 확대에 유익하다. 최근에 와서 경제외교는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연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안정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FTA 체결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안전한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무역 대국, 나아가 무역 강국으로 부상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 2)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동기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고려요인은 경제, 산업, 국제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중·일 FTA보다 한·중 FTA를 더 선호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중심(DRC)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

5) <http://www.cei.gov.cn>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

구실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동기가 우선적이며, 기타 해외시장창출, 국내 지역 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재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가진 위치는 에너지 자원 확보, 시장 확대, 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sup>6)</sup>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의 추진 동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의 안정화 확보

오늘날 세계경제는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지역주의의 연계 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FTA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인 손실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 하였으며, 지역 내 경제의 안정과 교역확대 등을 위해 FTA 등 다각적인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 (2) 기술차이의 해소

중국은 1978년 개혁 후,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 서방국가들 향해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와 선진 기술을 도입해 왔다. 서방국가들 향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감세와 토지 무상 제공 등 정책 특혜를 통해서 큰 규모로 FDI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런 제도 실행을 위해 많은 사회, 경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양자간 FTA 체결은 전보다 경제,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국과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6) 이성비(2009), "중국의 FTA 추진실적에 따른 한·중 FTA 전략."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8.

한국과의 FTA가 유리하다는 점을 중국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 (3) 동아시아 지역 협력권 확보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권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중 FTA는 중일관계의 차원,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확보의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보다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에서 뒤쳐져있던 중국은 최근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국의 석학들이 연구 중에 있는 한·중·일 FTA는 이상적이겠지만 한·중 간 FTA의 선 체결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sup>7)</sup> 만약 한·중 FTA가 선 체결되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 3. 한·중 FTA 추진 현황

###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전통적으로 한국은 GATT·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의존해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참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FTA 추진에 대한 간헐적인 검토는 1980년대 중반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개방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FTA 체결 논의를 유지할 수 없었다. 1999년대 중반 국내 학계 및 당시 통상산업부 통상정책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으로 FTA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997년말 외환 위기로 경제제도 선진화 및 개방경제체제 확립이 위기극복의 전제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 국내 정치상황은 당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7) 이선호(2010),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

FTA 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 9월 발표된 ‘FTA 추진로드맵’에서 한국 정부 상품관세,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단계별 추진대상국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단기간 내에 FTA 체결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순차적 FTA 추진보다는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다수 FTA를 체결할 수 있었다.<sup>8)</sup>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연합, 인도, 페루, 미국,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와의 총 7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중동등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단, 일본과는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2-1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체결	서명/타결	협상 진행 중	협상준비/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칠레(2004.4발효)</li> <li>-싱가포르(2006.3발효)</li> <li>-EFTA(2006.9발효)</li> <li>-ASEAN</li> <li>-인도(2010.1발효)</li> <li>-유럽연합(2011.7발효)</li> <li>-페루(2011.8발효)</li> <li>-미국(2012.3발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키(2012.8서명)</li> <li>-콜롬비아(2012.8가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나다(13차 협상)</li> <li>-멕시코(2차 협상)</li> <li>-GCC(3차 협상)</li> <li>-호주(5차 협상)</li> <li>-뉴질랜드(4차 협상)</li> <li>-인도네시아(1차 협상)</li> <li>-중국(4차 협상)</li> <li>-베트남(1차 협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본(실무협외)</li> <li>-한·중·일(공동연구)</li> <li>-Mercosur(공동연구)</li> <li>-이스라엘(공동연구)</li> <li>-몽골(공동연구)</li> <li>-한·중미(공동연구)</li> <li>-말레이시아(공동연구)</li> <li>-RCEP(공동연구)</li> </ul>

자료: 한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게재자료를 이용해서 작성(2013)

8)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을국출판사, p.123.

##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 무역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WTO에서보다 더 많은 특혜조치를 제공받고, 낮아진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비용이 낮아지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며,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원자재와 설비를 더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의 고객들은 더 값싸고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9)</sup>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경쟁,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한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최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한·중 FTA 추진 움직임에 자극 받아 한국과의 협상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 세계에서 반 FTA 세력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중국 내에서는 FTA를 찬성하는 편이다. 중국은 FTA 추진을 늦게 시작하였으나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국은 2012년을 기준으로 40여 개국과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ASEAN 10개국, 칠레,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페루, 홍콩, 파키스탄, 코스타리카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중국은 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스위스와 협상 중에 있으며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FTA는 MERCOSUR, 인도, 한·중·일 등이다.

---

9) 이경태(2007),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7.

<표 2-13>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체결	협상 진행 중	협상준비/ 검토 중
-ASEAN(2010.1 발효) -뉴질랜드(2008.10 발효) -대만(2010.9 발효) -마카오(2009.10 발효) -싱가포르(2009.1 발효) -칠레(2006.10 발효) -코스타리카(2011.8 발효) -파키스탄(2006.1 발효) -페루(2010.3 발효) -홍콩(2004.1 발효)	-GCC(6차 협상) -SACV(1차 협상) -노르웨이(8차 협상) -아이슬란드(4차 협상) -한국(4차 협상) -호주(16차 협상)	-MERCOSUR(공동연구) -인도(공동연구) -한·중·일(공동연구)

자료: 중국 상무부 FTA 홈페이지 게재자료를 이용해서 작성(2013)

### 3) 한·중 FTA 협상 과정

한·중 양국의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중 양국은 합의에 기초하여 2005년 3월 20일부터 2006년 11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R)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RC)이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공동연구에서 한·중간의 무역과 투자 현황을 비롯한 무역제도와 정책 그리고 무역확대의 장애 등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FTA가 양국에 가져다 줄 영향도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6년 11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관료회의 중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중에 있다 (<표 2-14>참조).

중국의 경우는 2000년 이전까지 FTA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 FTA 등 지역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중국은 40개가 넘는 국가(지역)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홍콩과 마카오와는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완전한 시장개방을 이루고 있고, ASEAN 10개국 및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과는 이미 협상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리고 SACU, GCC,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등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고, 한국, 인도, SCO와는 협상준비를 위한 공동연구 및 검토단계에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FTA는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RTA)에 속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구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건성<sup>10)</sup>과 대만간의 초보적 수준의 FTA를 구상하고 있는 등 FTA 추진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이다.

한·중 양국은 그 동안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발효 중에 있으며, 미국 및 인도와는 현재 협상이 체결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는 협상이 종결된 상태로 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은 협상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SACU, MERCOSUR 등과는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일본과는 FTA를 논의하다 중단되었으나 최근 다시 협상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10) 복건성(푸젠성): 福建省, 중국의 남동부, 타이완(臺灣) 해협에 면하는 성(省).

<표 2-14> 한·중 FTA 협상 과정

2004.09	한·중 통상장관회담,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ASEAN+3 계기)
2005	한국 KIEP와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간 공동연구 개시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11.17	한·중 통상장관회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2007년 개시 합의
2007.0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북경)
2007.07.03-04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 (서울)
2007.10.23-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 (위해)
2008.0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 (제주)
2008.06.11-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북경)
2010.0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협의 (북경)
2010.05.23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05.28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 (서울)
2010.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북경)
2011.04.11	한·중 통상장관회담 (북경)
2012.02.24	한·중 FTA 공청회
2012.03.01~0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서울)
2012.03.22~23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북경)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2012.0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 (북경)
2012.07.03-05	제2차 협상 개최 (제주)
2012.08.22-24	제3차 협상 개최 (위해)
2012.10.30-11.1	제4차 협상 개최 (경주)
2013.04.26-28	제5차 협상 개최 (하얼빈)
2013.07.02-04	제5차 협상 개최 (부산)
2013.11.03-05	제5차 협상 개최 (웨이팡)

출처: 외교통상부(2013)

#### 4. 한·중 FTA의 필요성

최근 한·중 양국은 FTA 정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호 FTA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동아시아 FTA 과정에서 관건적인 일이며 동시에 한·중 FTA는 한국, 중국, 일본 FTA에서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토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일 것이다.<sup>11)</sup> 그중에 한·중 FTA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다. 한·중 FTA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따라서 일·중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sup>12)</sup>

#####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역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11) 장걸(2012), "한·중 FTA의 추진과 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6.

12) 엄학의(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0.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이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ASEAN 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또는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sup>13)</sup> 현재 중국은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칠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교역 및 투자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이며,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중국과 한국 간에는 무역 및 투자 양면에서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면서 그로 인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 관한 분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 호혜적 분업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FTA와

---

13) 연합뉴스(2006), 전계서, p.31.

같은 제도적 통합정치가 필요하다<sup>14)</sup>.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해야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만큼 최대 수출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기 위해 한·중 FTA가 필요한 것이다.

한·중 FTA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경제에 한국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 할 수도 있다. 한·중간의 FTA는 FTA의 일반적 경제효과에 따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FTA라는 제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분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중 FTA는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 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

---

14) 손병해(2007), "한·중 FTA 사전 점검-한·중 FTA 왜 필요한가." Chindia Journal, 포스코경영연구소, p.23.

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중국이 수입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 중국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 중국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이익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외교 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오늘날 FTA의 과정을 보면, 각국의 FTA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 간 FTA체결은 일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 외교 안보적 이익과 국내정치적 통합이익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FTA를 협상할 때는 한 국가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상관계는 비단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나 영향력 유지, 더 나아가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등 중요한 정치, 안보적 수단임을 의미한다.<sup>15)</sup>

물론 한·중·일 3국의 FTA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 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15) 최지영(2007), "한·중 FTA 추진전략의 정치적 배경고찰-한·중 FTA를 중심으로." 정치학회, p.17.

16) 연합의(2006), 전계서, p.32.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양국 간 FTA가 필요하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북한과의 교류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북한, 중국 3자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며, 한·중 FTA를 통해 3국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 기반도 확대될 것이다.

### III.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통상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2005년 464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관세율은 13.2%로 낮아졌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5332개 품목과 30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2007년에 전 산업 평균 관세율은 11%대를 달성하였다. 2009년 중국의 관세율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12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수입관세평균 세율을 9.9%에서 9.2%로 인하 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관세 양허의무(관세인하 목표율)를 거의 달성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의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10개 농업품목(HS8단위로 53개 품목)에 허용하였다. 해당 품목은 밀, 옥수수, 쌀, 설탕, 양모, 면화 등이다. 설탕을 제외한 곡물류, 양모, 면화의 수입물량에 대해 1~10%의 저율의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s)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한 세율은 50~71%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데이터베이스에서 2008년 중국의 곡물류 수입관세율이 1.5%로 낮은 것은 당시 중국은 곡물류 순수출국이었고, 곡물류 수입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국보다 광범위하게 수입품목을 설치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은 아직 WTO에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분야 허용율은 97.59%이다.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허용율은 91.35%이고, 수산물의 경우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sup>18)</sup>

17) 정인교(2004), "FTA와 국가경쟁력강화." 한국외교학회, p.108.

18) 손학가(2010),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2.

한국은 199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산업별 평균관세율을 변경시킬 만큼 인하폭이 크지는 않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였고, 1997년 이전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8%의 기본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과 전 산업의 평균 세율 간 차이가 크지도 않다. 다만 농산물에 있어서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율할당관세(TRO)품목으로 인해 계산방식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TAP에서는 곡물류에 대한 실효세율을 236%로 계산하고 있으나, 세율은 7.2%로 낮다. 채소과채류와 기타 농산물(사탕수수, 양모, 식물성 섬유 등)에 대한 실효세율은 100%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sup>19)</sup>

## 2.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sup>20)</sup>

### 1) 한·중 FTA의 시나리오 분석

다양한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분석 시나리오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분야는 제조업 보다 교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 많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근거한 가격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에 비해 덜한 편이다. 농산물의 경우, 일부 교역은 국영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검역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도 많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농업분야가 FTA 추진에 가장 민감하고, 농업계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극히 민감한 농업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모두 곡물류에 대해서는 TRO를 부여하고, 쿼터에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워낙 차이 나므로 어느 관세율을 대상으로 선택 할 것인가도 용이하지 않다. TRO하의 자율관세를 가정하게 되면, 농업에

19) 한국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통계자료.

20)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정인고(2006)의 논문을 들 수 있음. 정인고(2006), "한국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본 논문은 정인고(2006)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였다.

대한 영향이 너무 축소될 수 있는 반면, 쿼터 외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사실상 수입저지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율관세는 농업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GTAP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협상에서 타결될 개방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추정치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개방을 중심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자 한다. 비록 중국과의 FTA체결 시 농업개방이 민감하더라도 농업이 완전 배제되거나 완전 개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을 포함한 기초산업을 개방하되, 일부만이 개방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자 한다. 즉, 기초산업 개방의 범위를 25%(시나리오1), 50%(시나리오2) 및 75%(시나리오3)로 가정하기로 한다.<sup>21)</sup> 이 경우, 중국 측도 제조업 분야의 예외를 요구할 것이다. 철강과 더불어 자동차는 중국이 주력 제조업으로의 육성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중국이 관세철폐 예외를 주장했던 산업이다. 양국 제조업의 생산 및 교역 구조로 볼 때, 수송 장비(특히 자동차)가 중국에게는 민감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송 장비에 대한 관세가 각 시나리오에서 25%, 50% 및 75% 인하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기초산업 및 수송 장비 외 나머지 산업은 3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완전개방을 가정한다.<sup>22)</sup>

## 2) GDP에 대한 영향

<표 3-1>은 한·중 FTA가 중국과 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 정리한 표이다. 양국 간 FTA체결 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GDP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와 같이 한·중 FTA를 하게 되면 양국이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의 GDP가 0.99~2.06% 추가성장이 예상되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GDP 증가율이 2.24~3.29%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로 자본축적으로 인한 동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1) 정인교(2009), "한국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p.12.

22) 조일유(2009),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과 경제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61.

<표 3-1>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완전경쟁			규모 자본축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한국	0.99	0.1.43	2.06	2.24	2.66	3.29
중국	0.27	0.25	0.21	1.50	1.43	1.32

주: GTAP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업데이트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됨.

자료: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p.123.

한편, 중국의 GDP 개선 폭은 한국에 비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모형은 3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의 GDP가 2.24~3.29% 추가성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GDP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된 것은 한국의 총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대한국 교역비중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4.8%였다. 중국이 이제 한국의 1위 수출 대상국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표 3-1>에서 나타난바 와 같이 농업분야 시장개방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GDP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농업분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개방이 확대되면, 중국의 경우 농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나 농업은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개방이 확대될수록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

### 3)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전반적으로 볼 때,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생산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산업의 경우, 시나리오1에서는 관세의 25%만이 자유화됨으로써 산업별 생산규모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화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3(75% 자유화)에서는 생산규모가 13%까지 감소할 전망

이다. 기초 산업은 농업, 수산업, 임업을 포함하고 있어, 품목별 영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보다 세분화 된 통계를 이용한 추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 내에서도 품목별 영향이 상당 수준 다를 수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경우, 제3국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과일 채소의 경우 영향이 클 수 있다. 한편, 중국산 곡물의 무관세화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가공식품, 축산업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곡물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시간을 두고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이들 재배치된 산업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sup>23)</sup>

<표 3-2>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단위: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기초산업	-1.87	-5.21	-12.47
가공식품	0.33	4.36	12.40
광물자원	0.43	0.18	-0.49
섬의류	32.87	34.88	37.35
화학	9.86	9.99	9.91
금속철강	3.63	3.05	1.78
수송 장비	-4.69	-4.36	-3.78
전기전자	7.08	6.28	4.58
기계류	3.89	3.09	1.57
기타제조업	5.11	5.47	5.90
서비스	-2.55	-2.26	-1.57

주: GTAP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업데이트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됨.

자료: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p.125.

23) 조우권(2010),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2.

중국의 경우, 다수 산업이 한국과의 FTA로 생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비해 생산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산업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은 전기·전자가 될 전망이다, 증가율은 3~4%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금속철강, 기계류, 기타제조업 등은 기초산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작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등 기초산업 생산증가를 위해 제조업에 고용되었던 자원이 기초산업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이다.<sup>24)</sup>

<표 3-3>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단위: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기초산업	0.55	1.11	2.04
가공식품	0.65	0.42	0.02
광물자원	0.26	0.26	0.26
섬의류	0.22	0.05	0.22
화공	0.49	0.49	0.49
금속철강	0.13	0.09	0.02
수송 장비	0.40	0.01	0.69
전기전자	3.37	3.47	3.63
기계류	0.35	0.30	0.21
기타제조업	0.29	0.22	0.11
서비스	0.04	0.01	0.36

주: GTAP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업데이트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됨.

자료: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p.126.

24) 정인교(2009), 전계서, p.126.

화공과 섬유류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양국간 수출증가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수송 장비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는 배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송 장비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비해 고관세를 부과하므로 한국의 생산은 확대되고 중국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 한·중 품목별 교역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FTA 체결 시 양국간 수출은 326억 달러에서 333억 달러로 증가하고, 수입은 76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수지는 24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개선될 것을 전망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55~65억 달러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중국 수입은 58~142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중국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4> 한국의 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대중국 수출	32,620	32,945	33,319
대중국 수입	7,596	8,494	9,292
대중국 무역수지	25,024	24,451	24,027

주: GTAP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업데이트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됨.

자료: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p.127.

예상하는 바와 같이, 농업 개방 여부는 중국의 한국 수출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곡물류에 대한 관세철폐가 철폐되는 시나리오3 아래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최고 70억 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농산물, 가공식품도 상당 규모의 한국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축적 가정하의 시나리오3에

서 농산물 수출은 무려 103억 달러로 한국 총 수출증가 예상액 142억 달러의 73%가 농산물 수출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한·중 FTA가 추진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농업의 전면개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한국 수출은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대국에게 긴밀한 교역대상국이므로 보다 수준 높은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한·중 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농업개방문제는 한·중 FTA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 제조업종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보다는 한국 생산자원이 대중국 수출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근무할 생산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 전에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대량 실업이라는 사태를 고려하여 FTA체결 이전에 FTA체결의 여파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25)</sup>

### 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은 2012년 총 GD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15억 인구에 기인하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외국인 투자의 집중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 될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역동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일본을 대체하여 아시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5) 조우권(2010), 전계서, p.76.

따라서 이러한 거대 내수시장과 세계자본을 지닌 중국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따라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는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에 최우선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통상마찰 및 일방적 보호무역조치의 역제의 효과를 가져와 대 중국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한국과 같이 해외무역 및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적인 무역구조가 아니라 보완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분업구조를 더욱 고도화 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모형<sup>26)</sup>을 통해 추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 할 경우 한국의 GDP는 0.14~1.28%로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여기에 자본축적까지 동시에 고려한다면 0.45~ 2.30%로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를 하게 될시,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관세철폐의 효과만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개선되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한·중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sup>27)</sup>

#### 1) 농업에서의 파급 효과

한·중 FTA체결 시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부분의 효과는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두 나라간 역사적 문화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이어짐에 의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유사

26) CGE모형: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내부의 상호의존적인 개별부분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유형이다. 유럽 경제 통합부터 NAFTA까지 모든 형태의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데 범세계적으로 활용된다.

27) 류명명(2008),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및 규모의 효과로 인해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과 한국의 일방적인 수입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 한국의 1차 상품 수입액의 38.9%, 그리고 농산물 수입의 42.2%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한국 국내 가격에 비해 1/3~ 1/4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시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 1차 산업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2) 제조업에서의 파급 효과

제조업 부분에서의 한국과 중국은 서로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은 중국에 비해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중국은 노동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 체결 시 제조업에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 교역 및 투자관계를 심화시키고 산업분업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양국 산업구조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도화시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중간의 FTA는 상호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TA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의류나 피혁, 가구, 전기전자 등과 같은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제조업에서 특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왔던 업종들은 타격과 함께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실업률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FTA를 시행함에 있어 신중한 방안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한·중 FTA의 정치적 파급 효과

남북이 갈라진 국내의 현 상황에서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중·

일 3국간의 FTA체결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 및 거대 선진시장권 역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견제할 기반을 다지게 한다. 물론 중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현실상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다리가 되어 3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면, 세계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쟁점 및 추진 과제

### 1. 한·중 FTA의 주요 쟁점

#### 1) 한국의 주요 쟁점

##### (1) 농업분야

농업분야가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및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규모의 효과에 의하여 한국 국내 농업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내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매우 빈약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은 그에 비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과 예외 없이 FTA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추진은 농업개방 수준을 WTO 다자간 협상의 결과 수준에 고정하는 제약 조건 하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한·중 FTA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농업의 민감 품목을 추출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민감 품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주요 쟁점은 예외조건의 수준과 민감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될 것이다.

##### (2) 제조업분야

한·중 FTA 체결 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및 생산 공정으로 자원 집중이 유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부가가치산업 부분의 구조조정을 의미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 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로 수직적 FID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추진 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의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FTA를 통한 대중국 FID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서비스분야

서비스 분야 중 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 형태가 아닌 공공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현지 주재요건(LP)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문직 서비스허가 및 자격증명이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투자 및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전화 및 컴퓨터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전기·정보통신·의약품·의료기기의 상호 인정, 기술자격 인정, 환경협력, 공동의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의 문제들이 한·중FTA의 주요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

분야별 양허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세계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개방수준이 높은 한국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또한 한국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추세에 따라 중국 자금의 국내 유치필요성 중대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존재한다. 이외에 금융 분야에서는 협정문 구성 형식에 대한 논쟁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통신서비스 분야는 국가기간산업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 몇 개의국유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자체도 투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이 진출해도 수익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분제한 완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보다 인터넷, 부가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같은 분야에서 양국 간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법률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한·미 FTA에서 이미 국내변호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체결한 FTA에서 WTO 수준으로 대표사무소형태만 개방하고 있는 중국보다 개방수준이 높다 하겠다. 한·미 FTA수준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하여 WTO수준의 개방을 선호하는 중국과 논쟁이 예상된다.

넷째, 해운서비스와 도로운송서비스 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완화, 영업범위와 영업기간 제한에 대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국 제도변경 및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은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양측의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2) 중국의 주요 쟁점

### (1) 농업분야

중국이 FTA를 체결했을 경우 수출 품목은 저부가가치의 농산품과 방직, 의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품의 경우 이미 여러 선진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농산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산품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는 줄어들게 된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정보가 자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한국은 농산품과 같은 피해가 큰 품목을 수입하면서 기술을 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연자원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농업기술, 경영관리 경험 및 국제시장 개척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업무역 투자자유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곡물 수입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FTA를 할 경우 한국에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 내에 유입되는 데 있어 규제완화, 무역마찰 등 문제가 있다.

원산지 분야 예상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원산지 상품 관련해서 수산품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수산업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주장할 것이다. 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경쟁력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음은 명확하다.<sup>28)</sup>

## (2) 제조업분야

한국의 제조업은 이미 중화학공업단계에서 기술집약적 산업(technology intensive industry)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보다 기술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본 및 기술부문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제조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월하므로 양국 간 FTA 체결 시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종에 충격과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제조업은 주로 고품질 제품을 목표시장(target market)으로 하고 있으므로 FTA로 이와 같은 제품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 내 동종 업종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FTA 체결을 논의하는 속도에 비해 한국과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 (3) 서비스분야

서비스분야는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각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비스분야의 협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을 포괄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능 집행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의료 등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도소매업, 건설, 금융 등 분야에서 중국은 강력한 현

---

28) 김화년(2010), "녹색제품협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p.4.

지 주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제품의 복제에 있어서 정교한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복제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 기업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음반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사용 문제가 거의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통신과 법률, 금융 등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허용 범위와 수준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 2. 한·중 FTA를 위한 추진 과제

### 1) 한국의 과제

#### (1) 농업분야

한국은 전통적인 농축산물 수입대국으로 세계 농수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사실 농업분야는 세계 제국 모두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 생산력과 경쟁력은 국가마다 다르고 차이가 매우 큰 분야이다.<sup>29)</sup>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농업규모 및 현황을 고려한 한국 농업의 민감성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의 FTA 논의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농업분야이다. 이는 기존 FTA 논의 과정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농업이 중국농업에 비해 절대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FTA 추진을 통한 시장 개방은 국내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추진되는 양국의 FTA 논의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합의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 FTA 논의에서 수립된 대응방안의 탈피다. 한국의 중국 농산

29) 환곤(2013),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8.

물 교역은 기존 FTA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한·중 농산물 교역의 동향과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중 농산물교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인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같은 제도적 운영에 대응방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보완대책의 사전수립이다. 한·중 FTA 논의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과거의 FTA 논의에서 전개된 결과와는 다른 효과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중국 농산물의 절대적 우위를 통한 국내시장의 위협은 한국 국내 농업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에 민감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를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지만 불가피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한국 국내 보완대책을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농산물 교역을 통한 품목 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곡물류와 과일 및 채소류이다. 이에 과실류에 대한 비관세 조치의 국내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채소류의 경우는 품목분류의 세분화를 통해 관세구조의 개선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국경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sup>30)</sup>

## (2) 제조업분야

한국은 무역 결합도 지수 TII 분석 결과를 보면 의류와 철강금속 제품이 가장 큰 무역결합도 품목이다. 무역특화지수 TSI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출 지향적인 제품은 철강, 인조장섬유, 신발류와 의류 등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은 선박, 통신기기, 정밀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이다.<sup>31)</sup> 한국 제조업을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일반기계 중소기업 기술력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목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중국 등 세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그래

30) 배기형·조성제(2010),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산물교역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 12권 제 3호, p.193.

31) 손학가, 전게서, p.85.

서 일반 기계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육성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금형부문의 경우 중국내 생산방식을 핵심부품과 범용부품으로 구분하여 현지 생산체제의 분업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의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한국 제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이 더 넓게 개방되어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시장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특화한 제품들에 대해서 특화를 높이고 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 즉, 한국이 강한 산업들은 중국시장의 확대를 이용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산업 및 제품에 대한 중국기업 나아가 중국 소비자들 FTA의 인식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략, 특히 각 산업별로 상대국의 특수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sup>32)</sup>

### (3) 서비스분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통관문제 해결 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중국 법인의 원부자재 수입 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 관세평가 문제의 해결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한·중 FTA 추진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한국 서비스분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한·중 FTA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추세에 따라

---

32) 손학가(2010), 전계서, p.86.

중국 자금의 국내 유치 필요성 증대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활용의 필요성 증대 등 요인을 감  
안할 때, 중국과 적극적 금융서비스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신서비스분야는 지분제한 완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보다 인터넷, 부  
가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완화와 같은 분야를 양국간 협상에 포  
함해야 한다.

셋째,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및 특허권 사용료 등의 분야는 대체로 상대적  
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33)</sup>

## 2) 중국의 과제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 후 중국의 FTA 전략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첫째,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  
째, 그동안 자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장하여 왔던 중국이 미  
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다소 개방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셋째, 중국이 낮은 수준의 FTA를 주장해 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보  
다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로 미루어 향후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  
로 보인다.<sup>34)</sup>

### (1) 농업분야

한·중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한국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며,  
FTA 추진 시 농업의 민감 품목과 예외조건 수준이 주요쟁점으로 보인다. 중국  
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저가가치의 농산품이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비록 한국의  
농산품 시장 개방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한국 측이 농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33) 엄충제(2010), "한·중 양국간 무역과 투자 특성에 따른 FTA 가능성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p.56.

34) 양평섭(2013),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와 함의." 함께하는 FTA, 6월간, p.9.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중시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농업과 농산물, 식품가공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산 농산품과 그 가공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대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중국 측은 특히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통상제도의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 내에 유입되는 데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마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등 협상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제품의 기술합작을 확대하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분야에는 중국이 완화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기국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sup>35)</sup>

## (2) 제조업분야

제조업 산업구조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으로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의 경우 자동차, 철강, 화공, IT 분야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FTA 체결로 관련 산업에 여파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자주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한국기업과의 무한 경쟁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체결 후 금형, 발전설비, 공작기계 등 민감 품목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수요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과 국내 생산 부문을 구분하여 범용제품과 핵심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 연구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고도화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고소비 산업중심이면서 에너지이용 효율도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에너지의 대량 소비는 비록 국민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면도 있지만, 반면에 에너지원의 부족은

---

35) 倪莹莹(2013), 전계서, p.67.

점차적으로 제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어 중국의 현 경제성장은 자원에 의해 제약받는 경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저에너지 소비산업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편 FTA의 체결은 중국의 대 한국 투자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밖에 나가라" 전략의 실시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도 점차 감소하고 기업의 해외시장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매우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up>36)</sup>

### (3) 서비스분야

자유화 후퇴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이 역진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FTA 서비스 협정문을 통해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향후 한·중 양국 간의 무역과투자 협력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관련국내 법규를 정비한 상태이므로 한·중 FTA에서도 TRIPS 협정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분야를 강조하여 중국의 미흡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sup>37)</sup>

한·중 양국의 경제구조는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로 현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중 FTA 체결에는 많은 경제적, 경제외적인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민감한 쟁점분야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식을 도출해낸다면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36) 손학가(2010), 전제서, p.82.

37) 朱雯莘(201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38) 이선호(2010), 전제서, p.65.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서 선진국과 FTA 서비스 협상에서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인력이동 양허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도 중국은 광범위한 전문 인력 이동과 함께 전문 인력 이동에 필수적인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의 추진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적 주체가 자본의 이동이라면 인력이동은 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생산요소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V. 한·중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1.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 체결 시에는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방 확대와 산업부분에서 양국의 비교 열위 산업에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FTA 체결에 있어 개방 대상 산업의 범위를 합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결정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양국은 비교 우위의 서로의 장점에 따라 중저가 공산품 시장이나 농업부분에서 많은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단순히 한·중 FTA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FTA 체결 국가 간 지역주의를 통한 역내 무역 강화와 타 경제 블록, 예를 들어 유럽연합, NAFTA,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과의 배타적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체계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정책으로 볼 때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과의 FTA 체결은 단순히 교역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조속한 추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중 FTA 체결은 실질적으로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 해당 산업분야에 커다란 위기와 기회로 다가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1) 한국에 대한 영향

##### (1) 농업부분의 교역량의 증가

한국은 한·중 FTA 체결 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극히 저조한 농업부분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에 따라 한국 내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중국산 농산품

은 관세율을 부과하고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산보다 높다. 이미 소비자들의 소비 기준은 품질이 보장되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것은 중국산을 선택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하여 대상 품목이 확대될 때 타격을 받을 농산품의 종류가 확대될 수 있으나, 소비자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쌀과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 논의 한다면 여타 농산품의 극적인 수입량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 (2)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의 감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의 무역거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한국 기업의 생산과 가공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점과 한국은 중국에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 농산물, 방직품 등 저가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점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무역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개발과 대외수출을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중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무역흑자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sup>39)</sup>

### (3) 관세구조 및 기술이전 효과에 따른 교역량 증가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양국간의 FTA 체결은 한국의 첨단 산업의 중국진출을 확대하고 이는 현지에서 이와 연관된 산업의 창출과 중국 내 산업화를 촉진하여, 양국간 경제결합도 및 상호의존도를 심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반산업에 대한 기초 및 중간 생산재의 유통을 활발히 할 것이며, 생산재의 유통과 더불어 경영관리를 위한 인적 교류와 장기적으로는 이에 따르는 기술협력이 유발되어 양국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자동차부품에 대해 수입 허가증 및 수입 쿼터를 폐지하

39) 정환우(2008), "2008년 한·중 간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p.30.

고 2004년 6월 발표한 신자동차산업 발전정책으로 수출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23%이며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대중 부품 수출은 2003년 9억 4천만 달러, 2004년에 17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주로 기어박스, 운전박스, 자동구동차축들을 수출하고 대중 부품 수입은 시계, 오디오, 스피커 등 저부가가치의 비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현재 80여개 업체 100개 법인이 단독 투자 또는 합작의 형태로 북경과 강소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 등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다.<sup>40)</sup>

중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 비관세장벽도 유지하고 있어 FTA에서 이것이 제거되면 한국기업의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갖추어 양국간 산업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쟁력 없는 노동집약적 부품은 현지 진출이 확대되거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어 수입이 급격히 사양화 된 전망이다.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 관세의 철폐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교역이 활발할 것이고 저생산성의 저부가가치 품목은 중국의 추월이 예상되며 고부가 부품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관세 장벽인 부품수입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수입이 완성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부품 수입관리법안’을 쉽게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이 시장 통합으로 인해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기지는 급속히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고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기술 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2) 중국에 대한 영향

### (1) 높은 비중의 중국 직접투자

저임금 및 낮은 토지가격 등 생산 요소의 우위를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은 중국에 해외 직접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

40) 임용남(2010), 전계서, p.69.

중 규제에 의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왔는데 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 발생량이 많은 사업의 투자는 거부, 첨단산업, 금융, 서비스업 유치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 장려 업종은 관세에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는데 투자 장려 업종에는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국에 투자된다면 중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장차 중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업 경영 능력 또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에 중국에서 된 ‘순환경제법’은 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를 비롯한 환경규제 강화,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는 심화될 전망이다.

## (2)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한데 이어 2012년 1월 1일부터 HS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다시 인하했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 9.8%로 5.5% 인하되었다.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당초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 중국의 관세 수준은 개발도상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3.9%)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전망이다.<sup>41)</sup>

---

41) 임용남(2010), 전계서, p.72.

### (3)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

2001년 이후 중국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대중수입이 확대되는 품목은 IT 관련 제품이며, 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이다. 또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잉여물량의 수출증가는 철강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IT 산업의 생산확대로 2011년과 2012년 중국의 반도체 생산증가율은 각각 23.9%와 344.7%, 휴대폰 생산증가율은 각각 30.0%와 5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IT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따라 관련 중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2.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어느 국가의 협상자이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며, 이것이 상호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한·중 양국이 먼저 기존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기에 정치적 상호 신뢰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상대방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더 많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공동이익의 원칙이다.

### 1)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국식의 협상방식 즉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식은 반드시 학계, 산업계 특히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중 FTA는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모두 포괄하며 최종적으로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농협 시장 개방, 민감 품목과 예외품목의 선정,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의 개방으로 중국경제의 기반이 위협에 전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오직 협상의 범위를 넓혀야 문제에 대한 타결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히 넓힐 수 있다. 협상 중에 한국의 취약한 농업분야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중국의 금융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대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이 한국보다 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국이 양보를 할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중·아시아 FTA에서는 고도로 민감한 품목이 있고, 중국·칠레와 중국·파키스탄 FTA에서는 예외품목이 있었듯이 한·중 FTA에서도 쌀이 예외품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체결 FTA 상대국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중국보다 낙후하며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의 경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중 FTA가 중국의 협상방식을 따르는 상품무역 위주의 FTA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FTA의 관세 인하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효과’와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력이 꼭 필요하며, 장기적인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 격차 해소로 인한 무역효과의 감소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FTA 협상에 임해야 하며 결코 ‘시간표’ (대통령 임기 내

등)가 있어서는 안 된다.<sup>42)</sup>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 시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하여야 하며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도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요구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중국의 대응 방안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분야와 투자자유화협상은 나중에 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개방에 민감한 자국 서비스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 있어서도 이미 체결 FTA 상대국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중국보다 낙후하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과의 FTA 체결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만한 사례는 별로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FTA 체결 시 취약부분인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체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선 국가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기반이 조성되기도 전에 한국에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을 FTA 대상에 제외시킬 경우는 한국의 포괄 협상 의지가 지속될

---

42) 임용남(2010), 전제서, p.77.

경우에는 FTA 자체가 타결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감 품목인 1차 산업에 대한 양보안으로서 금융, 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내세워 상품교역을 중심으로한 단계적 체결을 고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FTA 체결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한국이 나아가 일본 유럽까지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지체로 인한 대가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전문가보다 아직 FTA에 대해 아는 바가 적으며, 특히 FTA의 발전 동향과 추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영전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FTA로 중국산업의 기반이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대책, 제품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인증 및 검사절차의 강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보호, 무역투자관련 법규와 상관행의사전 안전화 등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다. FTA의 체결 시 사전대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통상 담당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략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경험 있고 유능한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고쳐야 한다. 유능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육 연구기관의 협력성이 추구된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국제통상 협상전문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한·중이 FTA를 체결한 이후 한·중 양국 무역관계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sup>43)</sup>

---

43) 임용남(2010), 전계서, p.66.

## VI. 결론

현재 전국가적으로 경제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함께 맞추어 가고, 타 경제권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한·중 FTA체결은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불가피하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양국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오늘날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력관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 1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2007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 이후, 한·중 FTA는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달성 요구정도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결정 될 문제만 남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의 여러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 보았다.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세계자본 아래 2012년 총 GDP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과의 FTA체결은 한국과 같이 해외무역 및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이 된다. 한·중 양국간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GDP는 0.14~1.28%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긍정적 예측아래 한·중 FTA 체결 시 여러 산업분야의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의 심화로 정치·안보유지까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까지 포함되어 한·중·일 3국간의 무역 협력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 및 거대 선진시장권역인 미국과 EU등을 견제할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달리 다소 수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농업 분야를 말하자면, 양국 농업의 가격 수지가 맞지 않아 한국 농산물 가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업종들은 큰 손해와 함께 구조조정까지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FTA 체결 시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자국의 특정 산업이 무역국에 비해 열세인 경

우 FTA는 자국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FTA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실로 다가 온 한·중 FTA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지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공존의 협상을 이루어 내야한다.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있을 국내 업계의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양국의 체계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중 FTA 진행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 유보)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 한다. 앞으로도 한·중 FTA체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고수준, 포괄적인 협상을 지향하며 경제적 손실이 있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심사와 융통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중 FTA가 있기까지 이미 양국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하여 많은 시행과 착오를 겪어 보았다. FTA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한·중 FTA 협의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특히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한·중 FTA 반대 의견에 부딪쳐 원활한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 고찰 할 시간을 갖으며 양국의 적절한 무역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각국의 실정에 밝은 통상 인력을 양성하여 통상교섭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양국은 앞으로 원활하고 '지속형 FTA'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잦은 만남을 통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찾고 국민의 적극적 지지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한·중 FTA는 변화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서 한·중 교역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자료:

김화년(2010), "녹색제품협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손병해(2007), "한·중 FTA 사전 점검-한·중 FTA 왜 필요한가." Chindia Journal, 포스코경영연구소.

송원근·최남석(2012),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손학가(2010),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비(2009), "중국의 FTA 추진실적에 따른 한·중 FTA 전략."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호(2010), "한·중FTA 추진에관한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치훈(2009), "2009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요인 점검." Issue Analysis.

양평섭(2013),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와 함의." 함께하는 FTA, 6월간.

임용남(2010),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염학의(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염충제(2010), "한·중 양국간 무역과 투자 특성에 따른 FTA 가능성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란운비((2012), "한국과 중국의 FTA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명명(2008),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기형·조성제(2010),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산물교역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장결(2012), "한·중 FTA의 추진과 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인교(2004), "FTA와 국가경쟁력강화." 한국외교학회.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원.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정환우(2008), "2008년 한·중 간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전호국(2011),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문유(2012), "한·중 FTA의 효과와 대응 방안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일유(2009),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과 경제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우쿤(2010),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곤(2013),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朱雯莘(201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倪莹莹(2013),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蘭云飛(2012), "한국과 중국의 FTA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국자료:

刘翹楚(2008), "中韩 FTA 分析." 华中师范大学经济学院.

刘昌黎(2008), "论中韩FTA." 东北财经大学.

芮秉煥(2009), "中韩FTA研究." 吉林大学.

明相穆(2009), "中韩FTA的经济效果分析." 东北大学.

陈东琪(2009), "中韩经济中长期发展战略." 南京财经大学.

王一鸣(2008), "中韩对外经济发展与国际合作." 东北师范大学.

## 인터넷자료:

한국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http://www.kiep.go.kr>

전국경제인연합회(FKI) <http://www.fki.or.kr>

자유무역협정 <http://fta.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

중국전문가포럼(CSF) <http://csf.kiep.go.kr/home.nsf/intro.htm>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http://www.drcnet.com.cn>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중국상무부 <http://www.cei.gov.cn>

#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Promotive Scheme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Yi, Xiong (웅습, 熊燿)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 Choon, Kim

Since China entered the WTO, communic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s became more frequent. Especially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East Asia, the communic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aspects lead to more and more attention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have strong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ness in resource, technology, capital, market, etc, especially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endowments elements of the mutual aid is quite high. Abundant labor and natural resources in China and production technology and open experience in South Korea make two countries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and make it a necessary tendency to build FTA between two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FTA is not only beneficial to their respective economic growth, but also is beneficial to the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on the one hand, China can reduce trade deficit to South Korea, and optimize industri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helpful for South Korea to get into the China market, which has enormous potential, and spur their economies to rely on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to look for new

growth point for the national economy.

The two countries also can ensure the stability of export market by FTA and develop industrial division and improve investment efficiency. But the strong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intensifies the imbalance of industry in the two countries and cause more concer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FTA. South Korea worries about the agriculture in China will impact their agriculture market, and China concerns that Korea's manufacturing will hinder then further development.

The two countries are afraid that once FTA is established, it will cause a series of social problems, including the problem of employment, and the opposition from related industries. In this situation, the two countries had better temporarily shelve the sensitive areas, and negotiate with each other in the field which presently is mature and easy to reach agreement. China and South Korea ought to make experiments in the main industries which they both have advantages, and first reach industries free trade agreement. As the European Union, first through the coal and steel joint and continues to expand the cooperative field so as to realize the economic integration. South Korea and China might as well realize the integration in individual fields, for example, they can first establish Korea and China electronics community. Waiting for condition is ripe for extending to other fields, and eventually the two countries would agree on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